

# 마음수련, 본성 회복과 학문의 재구성: 전인교육학회의 창립에 부쳐서

이중범\*

Keynote Address, Inaugural Meeting of the Academic  
Society for Human Completion: Maum Meditation,  
Subtraction, and Re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Lee, Chong-bum

## 요약

21세기 새 천년의 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시스템은 경쟁을 통해 승자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에 이기려면 지식의 습득과 경험의 축적 등 끝없는 더하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본성으로 돌아가기보다 그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였고, 사람들을 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였다.

전인교육은 마음수련 원리에 근거를 둔 빼기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본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전인교육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허상인 자기만의 마음세계를 버리고, 세상 마음인 참마음(본성)으로 돌아가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하기에서 빼기로의 발상의 전환은 실천과 관련된 사회제도나 학문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표본으로서 심리학, 예술과 공학 분야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실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 변화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즉 전인교육학회가 전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그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인, 전인교육, 빼기, 마음수련, 참마음(본성)

## I. 서언: 들어가기

마음수련을 창시해 UN-NGO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자협회로부터 교육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평화상’을 수상한 우 명 선생은 “나의 소원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지혜는 사람이 사람인 전인이라야 지혜를 가진 자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비워 세상 일체가 나온 본바닥의 마음(본성)으로 돌아가면 세상과 하나가 되니 자연스럽게 ‘나’가 아닌 전체인 세상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입니다. 정치도, 종교, 철학, 사상, 학문도 마음을 비워 본바닥으로 돌아간 전인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참으로 거듭난 전인만이 바르고 참으로 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시스템은 경쟁을 통해 승자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에 이기려면 지식의 습득과 경험의 축적 등 끝없는 더하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인류가 만든 각종 제도는 기능인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고,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지식과 기능을 더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마음세계를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즉 가족과 이웃, 사회, 세상과 합일할 수 있는 출발점인 세상의 본바닥으로 돌아가기보다 그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였고, 사람들을 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수련 원리에 근거를 둔 빼기의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본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입니다. 즉 마음수련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허상인 자기만의 마음세계를 버리고, 세상의 근본인 본바닥의 마음(본성)으로 돌아가 천인지가 하나인 참마음으로 다시 나서 살도록 하지는 것입니다(우 명, 2005: 25-36; 2008). 참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크고, 높고, 낮은 세상의 마음이라 세상 일체를 수용하는 마음입니다(우 명, 2003).

마음수련은 가짜가 진짜가 되게 하는 방법이고, 누구나가 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본래이고 세상의 본래인 참으로 다시 날 수 있는 시절, 말 그대로 전인이 될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전인교육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인교육학회는 오늘날 교육, 학문, 사회제도가 당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전인교육학회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전인의 논리 전달이 아니라 모든 이가 전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성 회복의 시급함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객관적 지식과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인 사회를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전인교육의 역사를 개관하고, III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마음수련을 통한 전인교육을 소개하고, IV장에서 전인교육학회의 역할과 과제로서 이론과 실천의 변화와 방향, 마지막으로 V장에서 그 전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II. 전인교육의 역사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인(의인, 부처, 도인, 진인, 신선, 성인, 철인 등등)이 될 것을 위하여 왔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 완성을 이루려고 즉 전인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즉 종교와 철학, 문학과 예술, 사회과학 모두가 인간의 본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진리를 절대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서 본래(신, 하나님, 부처님)로 돌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타당하지만 그 상태에 이르는 완전한 방법이 없어서 전인을 만들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노장사상(도교)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하기도 하고, 서구의 자연주의 사상가도 그 원류는 다르지만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상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나 완전하게 비우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당위적 지식만 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종교가 참회나 회개, 참선, 계명이나 계율을 통하여 전인을 만들려고 하였듯이 사상이나 철학도 도덕률(철학)과 윤리적 강령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거나 가라앉혀서 전인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맹자를 중심으로 한 초기 유교의 성선설은 선한 성품(4단과 4덕, 중화, 혈구지도)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였고(이홍우, 1996; 이병갑,

2005),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서 전인을 이룩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삶을 삶답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태도”로서 경(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황금중, 2005: 14-16), 퇴계 선생도 지경(持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안병걸, 1999). 중국에서는 전인의 덕목으로 지인용(智仁勇)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플라톤은 지, 덕, 체, 미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의 서구 자연주의자들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기능, 지능, 도덕의 근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았고, 자신이 스스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예, 선생)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유낙주, 2006: 223). 그런가 하면 인본주의자들(예, Maslow)은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존재로 인간을 보고 지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으로 통합되고 조화된 인간을 전인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려고 하였습니다(유낙주, 2006: 225-230). 우리나라 역시 전인교육을 지덕체예(知德體藝)로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가 철학이나 윤리를 통하여 시도하였던 전인교육의 특징은 본성 회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도덕적 의미의 선악을 지식이나 관념으로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사진 찍어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찍어왔던 관념과 감정의 사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진을 찍어 옛날의 사진 위에 더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사회과학은 다양한 현실을 다루고는 있지만 공통점은 가치판단과 관련된 철학의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상적 인간으로서 전인(성인)의 정의나 그것에 이르는 기본적인 방법을 철학의 영역에 맡겨 놓고, 객관적 사실이나 이론의 확인과 처방(설계)을 하는 데 치중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지(학습 이론, 동기이론, 인지이론, 성격이론 등등), 성인이나 전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종교는 이상적 상태인 ‘내가 없어지고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인을 주장한 것은 옳았지만, 그것에 이르는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면 공동사회의 필요성에 따른 도덕이나 윤리, 계율을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은 대상 자체가 전인을 지양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 내용은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의 선악(善惡)을 말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회과학은 아예 철학의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인, 즉 우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사는 전인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세상에는 많은 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교육학회는 역사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였고,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인교육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수련이 전인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음수련을 통해 전인교육의 목표인 참(진짜)을 알고, 우리가 버려야 할 허(가짜)를 알고, 그리고 허로부터 참으로 가는 길(방법)을 알기 때문에 본성 회복이 가능합니다(우 명, 2005; 2006; 2008). 그렇다면 마음수련이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참)과 현재의 상태(가짜마음),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방법(빼기)은 무엇일까요?

### III. 마음수련과 본성 회복: 가짜가 진짜가 되는 전인교육

더 이상의 논의를 하기 전에 진짜(참)와 가짜(허)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짜란 누가 봐도 실제로 있는 것이 진짜이고, 실제로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한 마디로 이 세상이 진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는 없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짜이고 특히 내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을 그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이 무한대 우주에는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는 천지만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는 대로 있는 대로의 진짜인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하나 지어지려고 해도 땅바닥이 있어야 지을 수 있고, 땅도 지구라는 바닥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듯이, 이 보는 대로 있는 대로의 세상 일체도 그것이 나온 본래의 본바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모든 별들이 순수 우주허공에서 조건에 따른 대폭발로 형성되었다고 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태초의 무한대 순수 우주허공이 세상 일체의 본래이기도 하고 근본이고, 근원인 본바닥인 것입니다. 이 본바닥인 순수 우주허공 자체는 영원 전에도, 지금도, 영원 후에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바닥은 살아 있기에 이곳에서 본바닥의 재질로 나온 세상 일체 또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우주에서 별이 하나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별과 우주가 따로인 것 같지만, 그 본바닥인 무한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별 또한 그냥 우주일 뿐이고, 별 개체의 입장에서 봐도 본바닥과 다른 마음이 없으므로 안팎이 없이 그냥 한마음으로 우주일 뿐인 것입니다. 별의 이치가 그러하듯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나는 천지만물과 달리 세상과 하나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따로 나 따로' 인,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마음인 본바닥을 떠나 자기만의 마음세계를 따로 하나 만들어 그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곳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서 카메라로 설악산 사진을 찍었다면 실제 있는 세상의 설악산은 진짜이지만, 사진인 설악산은 진짜를 베껴 놓은 허상이고, 생명이 없는 가짜 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원리를 제공한 사람의 눈도, 태어나 세상을 봄과 동시에 세상을 사진 찍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마음이란 인화지 속에 사진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세상에 나와 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본바탕인 본바닥의 마음, 즉 세상 마음이 아닌 부모의 마음이란 인화지를 바탕으로 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바라봄과 동시에 빛보다 빠르게 사진을 찍어 자기만의 그 마음이란 인화지에 마음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 마음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 고향집, 동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직장, 결혼생활 한 일체가 내 마음속에 거대한 터널처럼 이어져 있고, 그 어린 시절 부터 살아온 일생이 마음속 세계가 되어 한편의 비디오테이프처럼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우 명, 2005). 이 자기만의 마음세계가 실제세상과 너무나 똑같이 겹쳐 있어 사람은 세상에 사는 줄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세계와 실제세상은 엄연히 다른데 사람들은 마음세계가 진짜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고 있는 이 마음세계가 힘들면 세상이 못마땅해지고, 이 마음세계가 행복하면 실제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그 곳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그 마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진짜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모두가 세상과 똑같이 겹쳐진 사진세계인 자기 마음세계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마음세계는 세상인 본바닥에서 봤을 때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세계입니다. 사람인 나도 세상에는 없는데 나만 있다고 착각하는 그 허상의 세계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짓고 부수며 살고 있습니다. 즉,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 허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보는 대로 있는 대로의 세상은 모두가 진짜이고 참인 본바닥 자체로 있지만, 어느 누가 봐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나만의 마음세계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가짜이고 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체는 본바닥에서 와서 본바닥으로 있다가 본바닥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인 나만은 자기가 온 본래도 모르고, 왜 사는 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생명도 없고 따라서 실제세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자기 마음세계(사진세계)에 갇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본)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에서 보듯 제 정신이 차려져 있지 않는 삶은 아무리 애를 써도 실이 남지 않는 헛된 결과만 남고, 끊임없는 허망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사람도 세상에 실이 남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세상의 마음인 본바닥으로 돌아가 참으로 다시 날 때 본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 땅, 사람이 ‘한 몸, 한 마음’으로 귀일되는, 말 그대로의 전인의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바닥으로 돌아가 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음수련이라는 구체적인 빼기의 방법을 통해, 사진 찍어 구축한 허상의 마음세계와 그 속에 사는 허인 나를 다 빼서 지우다보면 나의 본래이고 세상의 본래인 본바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은 간단하지만 참으로 위대한 빼기입니다.

지금까지 본바닥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한 더하기의 시대에서 이제 다시 등져왔던 본래로 되돌아가는 빼기의 시대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빼기를 통하여 가짜인 나를 없애면 나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짓된 내 몸과 마음을 버려서 세상의 근원인 본바닥으로 되돌아가서 본바닥의 몸, 마음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우명, 2008: 198). 단계적으로 가짜를 버려서 진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찍어 놓았던 마음을 비우고, 몸에 배어 있는 습과 망념의 우주마저 버리면 세상인 우주 본바닥만 남게 됩니다(우명, 2005: 25-36). 마음을 비우고 빼다 보면 궁극이 있고 이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나는 사라지고 본바닥만 남게 됩니다. 즉 허상의 나는 사라지고 우주 본바닥인 진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불변하게 살아 있는 나의 본래인 대우주심, 대자연심으로 순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유이고 대해탈이며, 대지혜 자체인 누구나가 살아서 이루어야 할 인간 완성이고, 전인입니다.

전인교육학회의 목표는 이와 같이 허의 세상에서 살고(죽어) 있는 가짜인 나를 다 버려서 진짜로 나게 하고, 진짜로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더하기의 사고방식이나 전통적 학문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수련은 그 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져 왔던 완성자를 만드는 방법이고, 전인교육이란 마음수련의

방법을 통하여 가짜인 사람을 진짜(참)인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전인교육학회는 이와 같이 ‘빼기’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실천과 학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 IV. 전인교육학회의 역할과 과제 : 학문과 실천의 변화

발상의 전환은 실천으로서 행(삶)과 학문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전인교육은 좁은 의미의 교육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전체가 관련되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도 관련됩니다. 전인교육학회는 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객관적 연구 활동을 하며, 마음수련을 현장(교육, 직장, 가정, 사회 등)에 알리고,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인 사회를 앞당기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에 따라 전인교육을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학회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실천과 관련되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의 제약을 극복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전통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일반 홍보나 광고와 같이 일상적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고, 과학적 지식의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의 대상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전문가 자신이 종사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전문학회에서 그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전인교육학회라는 전문 단체 또는 그에 속한 전문가들을 통하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를 들면 전인이 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인교육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천 요소 중에 제도의 제약도 극복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 기적으로는 제도의 제약 속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전인교육의 정상화는 마음수련을 각급 학교나 대학에 정규 교과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마음수련에 근거한 전인교육의 당위성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마음수련의 긍정적 효과, 예를 들면 건강(정신과 육체), 긴장 해소, 집중력의 증가, 긍정적 행동으로의 변화, 자유, 평화와 행복 등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덕이나 규범을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 정당화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회적 제약도 극복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것은 전인교육을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보다도 더 단단하고, 높고, 두꺼운,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과 제도의 벽들, 예를 들면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치, 법, 사회, 경제, 교육제도 등등이 사회 전반에 산재하여 있을 것입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적 활동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문 활동은 전인교육을 정상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다른 넘어야 할 중요한 산입니다. 전인교육은 교육학을 포함하여 철학, 문화와 예술, 문학, 역사, 법, 사회과학, 의학과 자연과학 및 공학의 일체가 관련되어야

합니다. 더하기 학문에서 빼기 학문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심리학, 예술(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공학의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의 형태, 연구 방법과 해석의 차이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행동을 설명-예측하는 이론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처방(치료나 설계 포함)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성격이나 태도, 동기, 인지, 정서, 학습, 심층심리, 생리적 요소 등등 다양한 개념을 통하여 심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성(본바닥)의 입장에서 심리 현상을 보면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세계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설명의 대상은 되지만 없어져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심리학의 관심이 사진세계인 심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버리는(지울) 방법에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기이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어떻게 지식을 더하기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예, 목표달성)을 유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새로운 동기이론은 사진을 버리(비우)는데 동기화되는 조건을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 공격 성향의 감소, 귀인(탓)의 변화(우명, 166-67; 316-317) 등등 마음수련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이 연구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수련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마음수련의 활성화를 보조하기 위한 도구로서 재해석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도 생리적 현상(두뇌의 구조나 호르몬 문제 등)에 대한 연구는 의학과 연관이 많고, 이 부분은 변화가 비교적 적겠으나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과거의 것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즉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의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 영역의 개편도 예상됩니다. 심리학 연구 분야 중에 불필요한 지식은 사라져야

하고 필요한 분야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심리와 정신 치료 이론 중에는 대화나 회상의 방법에 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들이 빼기의 철학에 맞게 재해석되면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술 분야(문학으로 읽어도 됩니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술은 이론보다 실천이 더 앞서가는 분야입니다. 그 주제도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주제를 보면 의식주나 여가와 관련된 실생활로부터 초월적 삶을 추구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까지 다양하고, 또한 그 표현 방법도 생활양식부터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 디자인, 설계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술도 그 시대사조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인을 만들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예술은 더하기와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와 예술은 완성의 시대에 맞도록 본성 회복을 지원하는 빼기의 관점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상생과 협동의 시대에 맞도록 재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세계(사진)가 허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르가 중요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면 사진세계를 벗어난 상태의 음악이나 미술, 디자인, 영화 등의 전인시대의 예술 활동이나 작품이 더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진세계에 호소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동기화하고, 인간의 감정(열등의식이나 허영심)을 부추기는 상업적 광고나 예술은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그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등등)의 지식은 변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인 사회로 가는 데 불필요한 연구는 기피하여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과 공학 분야는 더하기 학문이 빼기의 학문으로 바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학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즉 목적을 가지고 일정 조건하에서 자연 과학의 원리를 동원하여 새로운 것(인공물, 예 자동차)을 만드는 것입니다(Simon, 1981). 지금까지 공학의 결과물은 사람의 필요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목적 이외의 다른 필요성이나 부작용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학의 결과물인 기술은 많은 경우,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 면에서 보면 양날을 갖고 있습니다. 더하기에도 쓰일 수 있지만 빼기에도 동시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학의 지식을 빼기의 방향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빼기를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설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나 전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무기와 관련된 공학의 발명품들은 빼기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빼기 시대에는 사람이 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야에서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사회과학이나 법학, 의학, 인문학, 농업 등등에 대한 자세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들 역시 더하기의 관점에서 빼기의 관점으로 전환하였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지식과 기술들도 빼기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빼기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회는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학 기술이나 관리 기술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의 지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능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면 의료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완전시대에는 전인교육을 기능(지식) 교육과 동일시하면서 본성 회복을 무시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본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을 하고, 먹고 사는(기능 분야의) 지식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우 명, 2008). 우리는 학문 영역 중 존재하여야 할 것과 없어져야 할 것에 대한 전반적 방향은 제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 경계는 뒤로 미루고 논의를 마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V. 결론: 참 학문을 향하여

우리가 사진세계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사진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을 그곳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기존의 이론이 더하기를 위한 것인지 반대로 빼기를 위한 것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학계에 비해서 전인학회 회원들은 연구 방법론, 즉 이론의 확인이나 반증 방법, 해석 방법 등등 정당화의 논리에는 약할 수도 있지만, 회원들은 현존하는 지식 체계 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빼기의 참 학문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귀중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인간은 진짜(참)와 가짜(허)를 모르고, 가짜 속에서만 살아왔으니, 진짜가 있어도 인간은 자기가 가진 관념과 관습에 얽매어 진짜를 모르고 살고(죽어) 있었던 것입니다(우 명, 2006; 2008).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틀(관념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쿤(Kuhn, 1962)이 이야기 한 것처럼 자연과학 이론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사고틀)이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고 현

실로 정착되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패러다임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기까지는 지동설이 나오고도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즉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 그것이 사회의 정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더하기의 미완성시대의 학문에서 빼기의 완성시대의 참 학문으로 바뀌고 이 관행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전인교육학회와 우리 회원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연구하여 빼기시대의 참 학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어느 때는 실천이 먼저 있고 후에 이론으로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때에는 이론이 선도적으로 실천을 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학회는 사람들의 본성 회복을 앞당기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전인교육은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테두리에 한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국내 학회들은 대부분 학회 명칭 앞에 ‘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교육학회는 처음부터 이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회가 하는 일이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본 학회가 출발을 하였지만 한국에만 머무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본성 회복의 문제는 세계가, 인류가 같이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할 주제입니다. 전인교육학회가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완성시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전인교육학회도 그 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치 종교나 철학이 불완전시대의 표상이었듯이 전인교육도 미완성시대에서 완성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 안병걸(1999), 퇴계 사상체계의 마음공부, 퇴계학 10: 131-154.  
우 명(2003), 세상 너머의 세상, 참출판사.  
우 명(2004), 영원히 살아 있는 세상, 참출판사.  
우 명(2005), 하늘이 낸 세상 구원의 공식, 참출판사.  
우 명(2006), 살아서 하늘사람 되는 방법, 참출판사.  
우 명(2008), 진짜가 되는 곳이 진짜다, 참출판사.  
유낙주(2006), 전인교육 실현에 관한 고찰: 초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교  
육논총 26(2): 217-245.  
이병갑(2005), <대학> 3강령 8조목의 분석과 행정학적 함의, 행정논총  
43(3): 357-376.  
이홍우(1996), 전인교육론, 도덕교육연구 8: 1-21.  
황금중(2005), 성리학의 마음교육 이해와 현대 공교육에의 시사, 한국교육  
32(4): 3-33.  
Kuhn, Thoma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imon, Herbert A(1981),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Second  
edition, Cambridge: Press.

■ 성명: 이종범

주소: (590-811)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49-14

전화: 063-630-1007

전자우편: cblee@korea.ac.kr